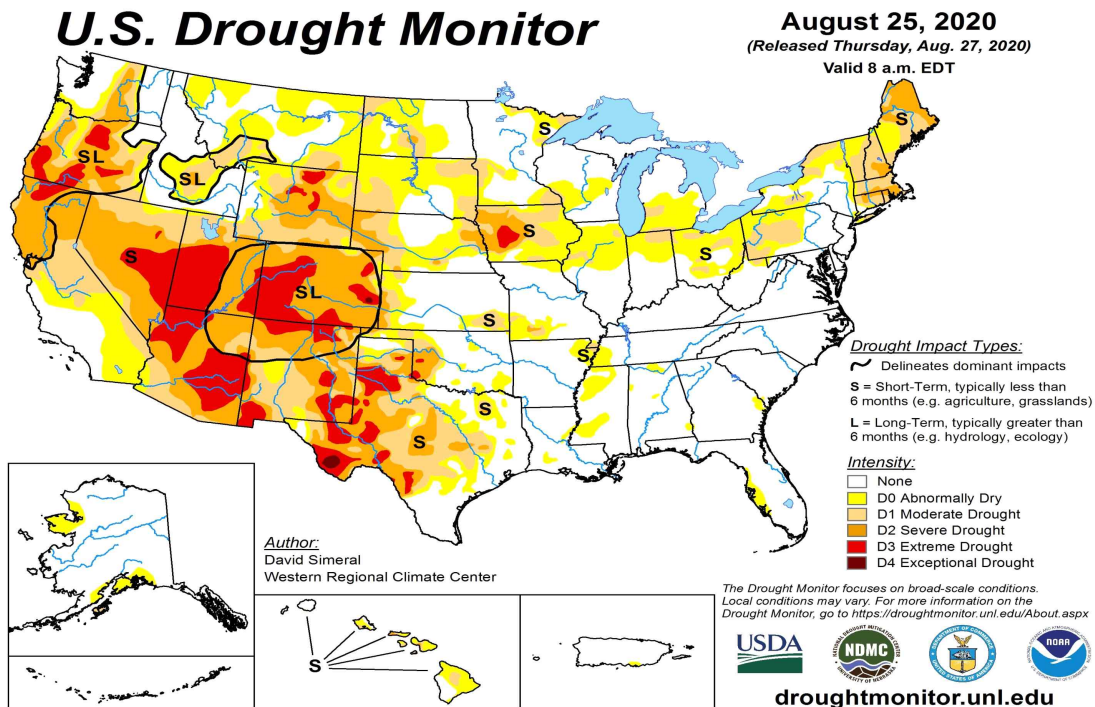


9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5)

□ 미국 기후 현황(8/23~8/29)

제 4 등급 허리케인 ‘로라’가 8월 27일 하절기 중부표준시 오전 1시에 LA 카메론 근처에 상륙하여 강풍과 해안 폭풍 해일로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상륙 당시의 로라는 거의 시속 150 마일에 가까운 풍속을 유지한 바람이 특징이었는데 1856년의 ‘더니어스 제도’ 폭풍 이후로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었던 허리케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다. 상당한 바람 피해가 내륙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특히 LA의 레이크 찰스에서 시속 130 마일 이상의 돌풍이 발생하는 등 두드러진 피해가 나타났다. 로라와 관련된 폭우와 돌풍이 아칸소처럼 먼 북쪽까지 이르는 했지만 대서양 중부 연안을 향하여 동쪽으로 선회한 후에 빠르게 약화되었다. 한편, 폭우가 오대호 지역에서 북동부까지 퍼졌지만 가뭄에 시달린 옥수수 벨트 서부 구역은 우회했다. 서쪽으로 더 가서 태평양 연안에서 고원 지대까지 점점이 내린 소나기는 토양 수분 감소, 방목지와 목초지에 대한 스트레스 및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이 된 광범위한 가뭄 상태를 거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늦여름의 더위는 서부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지역도 지배했다. 사실, 평년 이하의 기온을 경험한 유일한 주요 지역은 뉴 잉글랜드 북부였다. 옥수수 벨트 일부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의 10° F 이상이어서 가뭄 피해 지역의 토양 수분 부족 또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 8월 10일 드레초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아이오와는 여전히 중서부 가뭄의 중심지였다. 극심한 더위 (평년보다 최대 10° F 이상)가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남부, 그레이트 베이슨 및 포코너스 주들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 농업 현황 요약(8/24~8/30)

전국 대부분을 평년 이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배했다. 오대호, 평원 북부, 로키 산맥 및 남서부 대부분은 기온이 평년보다 6° F 높았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뉴 잉글랜드는 평년 미만의 기온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열대 폭풍 마르코 (주초)와 허리케인 로라 (주말)가 멕시코 만과 미시시피 계곡 하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를 내렸다. 엘라베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 동부 및 플로리다의 팬핸들 일부 지역에 내린 총강수량은 4인치 이상이였다.

□ 세계 기후 현황(8/23~8/29)

■ 유럽: 프랑스와 발칸반도 남부에는 건조 포켓들과 가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가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했다. 일련의 교란이 동쪽으로 대륙의 북부와 남부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 북부에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8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고, 프랑스 남부에서 동쪽으로 동유럽과 유럽 남동부까지에도 비슷한 강수 지역을 볼 수 있었다. 그 두 지역 사이에 더 가벼운 소나기 (10 mm 미만) 이기는 했지만 널리 퍼져 내렸다. 프랑스 중부, 독일 동부 및 폴란드 북서부 일부에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토양 수분 공급이 겨울 작물 파종에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불가리아 북부와 루마니아 남동부에는 급성 가뭄이 지속되어 지역에서 겨울 작물의 파종과 출현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여름 작물들은 대체로 종실비대-성숙기 후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비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북쪽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으며, 이탈리아에서 다뉴브 강 계곡 하부까지는 늦여름 더위 (낮 최고 기온이 38° C에 이르러 평년보다 최대 3° C 높음)가 두드러졌다.

■ 구소련(서부): 중부 및 동부 재배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지만 대조적으로 서부와 북부에는 광범위한 비가 내렸다. 흑해 연안에서 러시아 서중부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고기압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유지하면서도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이어서 토양 수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여름 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러나 심화되는 가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서중부와 동부는, 러시아 서부 일부는 물론이고, 종실비대 중인 여름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계속 감소했다; 이 지역들에서 지역적인 90일 총 강수량은 평년의 50 % 미만이었다. 건조한 양상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소나기 (2~15 mm)가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점점이 내려서 지역적으로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한편,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7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그 지역의 서부 및 북부를 휩쓸면서 서우크라이나에서 나중에 발달하는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하여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북서부까지 수분 공급량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했다.



■ 동아시아: 태풍 바비가 주중에 황해로 이동했고 주말로 가면서 북한에 상륙했다. 바비의 지속적인 바람은 상륙하기 전에 100 노트에 가까웠는데, 중앙부 기압 기준으로 이번 계절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이었다. 게다가 그 폭풍은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그리고 북동부 대부분에 50~200 mm의 비를 내렸고 북한 일부는 200 mm 이상으로 적셨다; 남한 대부분에는 비가 100 mm 미만으로 내렸다. 그 강우가 지역의 수분 부족을 완화시켰지만 대부분의 여름 작물들은 성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건조한 날씨가 더 좋을 것이다. 한편, 화북 평원과 중부 양쯔 계곡에 있는 더 건조한 커다란 날씨 포켓이 여름 작물이 성숙하도록 도왔다. 그밖에, 계절을 벗어난 건조가 일본 대부분에서 계속되어 벼의 관개 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 호주: 먼 남쪽과 동쪽에 집중된 비 (5~25 mm)를 제외하면 밀 벨트 전체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만연했다. 날씨가 비교적 건조했지만,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수분 공급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강우량이 평년 수준보다 낮았고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되고 있는 퀸즐랜드 남부의 작물들이 생식기로 진입하여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더 많은 비가 내린다면 환영받을 것이다. 호주 동부에는 평년보다 더 서늘한 날씨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 C 낮음)가 자리 잡으면서 작물 발달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밀 벨트 북부 지역의 작물들에게 격리된 동결 상해를 입혔을 수 있다. 그 밖에,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지난 주의 동결 이후 겨울 곡류의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중앙 아르헨티나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레 리오스를 아우르는 남부 농업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 C까지 올라가면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5° C 높았다. 밤 최저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 C 이하로 떨어졌고 서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온은 대체로 영상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북부 전역은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 (낮 최고 기온은 40° C에 육박하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7° C 높았음). 소나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밀과 보리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건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해바라기는 12% 파종되어 (작년의 41% 대비) 48%를 심은 산타 페의 뒤를 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다른 보고서들은 건조와 동결이 겹치면서 눈에 띄는 손상을 입었다고 묘사했다.

■ 브라질: 남부 농장 지역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아서 생산자들이 지난 주에 입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서리 피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토 그로소에서 리오 그란테 도 술까지 남쪽으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에 이르고 결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 C 높았다; 비는 대체로 밀 주산지의 북쪽에 있는 리오 그란테 도 술 남부에만 내렸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4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하지 못한 밀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밀을 늦게 심은 리오 그란테 도 술에서는 8월 27일 현재 40%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그 주(州)의 보고서는 생식기-중실비대기 밀에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 덕에 계절 야외 작업이 원활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8월 28일 현재 면화는 95% 수확되었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일반적으로 9월 말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대규모 대두 파종을 받쳐주려면 우기가 적기에 시작되어야 한다.